

뉴욕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ecuring Financial Support for New York Public Library

김호숙, 수정문화정보센터, iriseve@hanmail.net

Hyo-Suk Kim, Sujeong Culture & Information Center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전문분야로 특화된 대학원 수준의 4개의 연구도서관과 85개의 지역분관을 가리키는 복합관의 총칭이다. 뉴욕시는 인구 800만의 5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는데, 뉴욕공공도서관은 맨해튼, 브롱크스, 스테튼섬의 3개지구 330만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개 지구를 브루클린공공도서관, 퀸즈공공도서관이 관할한다. 연간 예산은 2억8천만달러에 달하며,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이용자가 150만명, 홈페이지 이용자도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운영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로 손꼽히면서도 공립(公立)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설립부터 독지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도서관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행정과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뉴욕공공도서관의 핵심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가 일정부분 상정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1. 서론

뉴욕공공도서관의 전신은 1849년에 개관한 미국 최초의 무료열람도서관인 독일계 이민자 존 야곱 에스터(John Jacob Astor)의 기부로 건립된 에스터도서관과 부동산왕인 제임스 레녹스(James Lenox)의 장서에 기초한 레녹스도서관이다.¹⁶⁾ 그러나 이들은 상류지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취미가 반영된 장소로 일반시민에게는 친근감을 줄 수가 없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 두 도서관은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마침 뉴욕주지사를 지내고, 후에 대통

령 후보에 올랐던 정치가 사무엘 틸든(Samuel J. Tilden)이 뉴욕에 무료도서관과 독서실 건설을 위한 유산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던 유산수탁자 변호사 존 비게로(Jahn Bigelow)는 2개의 도서관과 틸든의 유산을 합하여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서관을 제안한다. 결국 3자간 합의는 1895년 시민에 의한 도서관인□□뉴욕공공도서관=에스터 레녹스 틸든재단□□을 비영리민간단체(NPO)로 탄생시켰다.

뉴욕의 공공서비스 가운데 항상 1위를 랭킹하는 뉴욕공공도서관은 자원봉사만도 700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각종 프로그램의 접수, 관내 투어가이드에서 전문성을 살린 강좌의 강사가

16) <http://www.nypl.org/admin/pro/history.html>

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의문은 시민들로 하여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무엇에 근거하는가에 귀착된다.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한 수많은 세심한 서비스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넘치는 도서관원들은 □□도서관 때문에 맨해튼을 떠날 수 없다 □□는 뉴욕커들을 만들고 있을 정도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인터넷과 급변하는 정보기술은 중앙정부의 축소와 지방정부간 교류의 활성화를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글로벌화가 지역사무를 주민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와 자치단체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을 중심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많은 국가들이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국내 공공도서관의 재정적인 파장을 추론해 보았다. 국비 및 도비의 지원이 삭감되거나 자료구입비 등의 항목이 제외된다고 했을 때 재정자립이 어려운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 책정을 어렵다고 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 자유롭기 위해서도 뉴욕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연구는 불가결한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도서관으로 운영면이나 재정면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에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민주주의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재정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내 공

공도서관이 맞닥드리게 될 재정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뉴욕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 방안

서구 주요 국가들의 도서관재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의거하며, 운영도 운영위원회와 같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발달해 왔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원확보의 방법이 다양하다. 일정 비율의 지방세와 연방 및 주(州)의 보조금, 그리고 재산세, 주식거래의 이익금에 대한 부과세, 주류나 담배, 가스 및 전기 및 수도세 등의 일정비율, 벌금이나 기부 등 다양한 장치가 그것이다. 영국은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에 의해 국가보조금, 지방세, 그리고 자체수입인 입관이용료와 대출에 따른 연체료 등에 의해 재원을 충당한다. 일본은 공공도서관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재정(지방세 등)과 국가보조금(방위청, 통산성, 자치성)에 의거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지방재정과 국가보조금에 의해 공공도서관의 재정을 충당하도록 하고, 임의로 이용료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얼핏 보면 재정확충 방법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구 국가들이 그렇듯이 지방재정의 비율이 높거나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재정충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정은 지역민의 세금에 기초한다. 이는 일면 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일정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뉴욕공공도서관의 자금 확보를 위한 전략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특화된 사업개발부 운영

자금조달을 위한 사업개발부 사무실은 뉴욕공공도서관 본관 지하에 위치해 있다. 연일 자금확보를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이 부서의 직원들에게는 도서관 실무와는 전혀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개발부는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탈피한 전략적인 수법으로 자금조달에 착수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적인 국가들에서는 뉴욕공공도서관과 같은 NPO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분주하거나 관련한 마케팅들에 위화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NPO들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사회에 널리 피력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개인이나 기업, 행정가들로부터 자금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또 일정 규모를 이상의 NPO들은 사업개발부나 마케팅, 홍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 달리 NPO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사명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기업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지만, NPO는 수익을 차년도 이후의 사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NPO는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미술관들은 NPO에 의한 운영이 일반적이어서 뉴욕공공도서관은 오히려 뉴욕의 매트ropol리탄 미술관이나 근대미술관의 운영방법과 공통되는 점이 많다. 그러나 일반 공공도서관에서조차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실한 서비스를 위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일이 많은데 이점에서는 뉴욕공공도서관도 다른 공공도서관과 큰 차이가 없다.

2) 기부를 위한 강좌개발

기부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도서관을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인 friends of library인데 여기서는 연간 25달러에서 기부금액에 따

라 단계적인 특전을 마련하고 있다. 25달러 회원의 경우 도서관 내의 상가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250달러 회원은 작가의 강연회, 출판 전 책의 전람회를 즐기는 이벤트, 화려한 만찬회, 직원이 안내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투어에 초대되거나 도서관연차보고서의 기증자목록에 이름이 등재된다. 25,000달러 이상의 회원은 관장이 주최하는 평의회 회원이 되어 앞서 언급한 특전들과 함께 한정된 관계자들만이 초대받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원들에 대한 특전은 도서관으로의 귀속의식을 높이고, 고액의 기부를 유도하여 회원이 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고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도서관을 지원하려는 뉴요커들은 특별히 부유층이 많아 도서관측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도서관이 주최하는 기부강좌가 그중 하나로 다수의 노인층과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부강좌의 내용은 상당히 현실적인데 주로 변호사가 강좌를 맡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기부가 자산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더 유익한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직원들도 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가장 민주적인 공공재임을 피력하는데 직접적으로 기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데에 관심이 있는 부유층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인다. 현금기부 이외에도 유가증권, 고정자산, 부동산을 비롯하여 연금, 확정대출형 연금, 생명보험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된다. 더불어 도서관에는 세금우대 등에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가를 상담해주는 창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3) 인적네트워크 유지

자금 확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보다 담당 직원들이 평소에 지역의 여러 곳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독지가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직원들은 자금이 필요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상정하여 면담을 신청하고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그것이 기부에 의해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부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기부를 획득한 경우에도 기부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보고해야 한다.

뉴욕은 기부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격정지구로 부유층에서는 제안된 기부들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가장 잘 맞는 단체를 엄선하여 기부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활동이나 이미지는 항상 시험대에 올라있다. 도서관에 기부하는 것이 기부자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것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외부에서는 현재 뉴욕공공도서관이 부유층을 기부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90년대 중반에는 주식급등 등으로 억만장자가 속출하여 그들의 세금대책에 도움이 되는 백만달러 이상의 대형 기부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부금에 의한 도서관건설 및 개설이 쇠도하기도 했다. 특별히 1997년에는 뉴욕공공도서관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조달 캠페인으로 5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4개년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정보테크놀로지에의 대응이나 새로운 서고의 확보, 자료보존을 위한 공조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지역분관의 개장공사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직원들은 도서관에 있어서 경기의 동향이 매우 중요하고 호경기의 많은 기부금들이 도서관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했다고 평한다. 한편 자금원이 특정 부유층에 편향되어 서비스가 개인의 취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부금의 용도는 직원들이 독지가와 신중하게 상의하고 있다.

4) 다양한 스폰서 형성

뉴욕공공도서관은 기업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주요 기업의 대부분이 도서관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변호사사무소, 출판사, 뉴미디어 관련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개인의 기부와 마찬가지로 1,000달러에서 25,000천 달러 이상까지 연간 기부금액에 대하여 특전이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 기금에 대한 기부는 25,000달러 이상부터이며 별도로 연구도서관의 자료구입이나 사서교육 등을 위한 자금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기업들은 만찬회에 초대되거나 사서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도서관의 자료나 활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런치타임 도서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도서관의 집객력을 이용한 이벤트의 스폰서를 제안하거나, 마케팅의 목적에 맞춘 기획을 입안하기도 한다. 한편 도서관의 아름다운 건축을 살려서 미팅이나 파티를 위한 회장으로 쓸 수 있도록 대관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본관의 대형 홀의 대관은 2만 달러로 식사나 장식 등도 도서관측이 담당한다.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관(SIBL)에서도 회의실을 대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에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랜탈요금을 지불할 때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기업이 스폰서가 되기 용이하게 다양한 기획을 준비한다. 그중 하나가 본관에서 행해지는 전람회의 스폰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1984년 이래 200회 이상의 전람회를 실시해왔는데, 회장에는 한 달에 약 15만명이 찾아온다고 한다. 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공적 공간에서 교육적인 이벤트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스폰은 평균 5만달러 정도로 전람회나 관련 팸플릿에 기업의 이름이 명기되는 것 이외에도 각종 미디어

를 통해 스폰서로 이름이 알려질 수 있어서 그 선전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보다 지역에 밀착된 형태로는 컴퓨터견습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1구좌에 만달러인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위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의 사용법을 훈련시킨 후, 그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돕도록 한다. 이것은 컴퓨터 리더로서 교육과 아르바이트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획기적이다. 또 읽기쓰기교실, 의료정보제공, 도서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한 스폰서도 모집한다. 도서관의 특정장서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서관은 자금을 획득하고 기업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스폰하기 쉬운 형태로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들은 기업이나 도서관 모두에게 매리트가 있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뉴욕은 국제도시로 외국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도서관측에서는 일부 직원들에게 이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위해 외국어를 배우게 한 사례도 있었다.

5) 이벤트 개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자금 모금을 위한 이벤트도 기획한다. 참가자는 티켓요금에 포함된 기부금을 지불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세부터 14세의 어린이와 부모로 구성된 400가정이 모이는 □□도서관에서 책 만들기□□는 가족이 함께 동화를 듣고, 표지를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제본되는 책의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자원봉사들이 기획하는 자금 모이기 이벤트도 있다. 문학중식회(中食會)는 작가의 강연이나 패널토의를 위해 연 1회 개최되는 행사로 역시 티켓 요금의 일부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녁 만찬들은 상당히 고액으로 만달러에서 5만달러까지의 테이블이 준비된다. 최근

에는 비즈니스맨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이벤트도 시작하고 있다. □□투자 서비스 리더 포럼□□은 클린턴 정권 시에 재정부장관을 역임한 시티그룹의 임원겸 경영집행위원회 회장인 로버트 루빈이나, 천재 투자가라는 별명을 가진 워렌 버핏 등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조찬회이다. 참가비는 4회에 천달러로 그 가운데 2백달러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자금 모이기 이벤트들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교계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호화맨션에 유명한 요리사를 초대하여 개최되는 만찬회로 참가자가 취향이 맞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같은 테이블에 앉은 참가자와 만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는데 1995년의 도서관 백주년기념식에서는 맨하튼에서 100개의 디너가 열렸으며, 천명 이상이 참가자가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이벤트에의 참가는 시민의 사회공헌 의식을 만족시키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만남이 인맥을 넓혀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 어떻게 참가자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기획을 통해 도서관으로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가에 사업개발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 기부 대상의 확대

2000년부터 시작된 □□영 라이언□□은 사업개발부의 고객 개척을 위한 신기획이다. 지금까지는 뉴욕 타임즈의 사교란에 이벤트 사진들이 게재될 정도로 화려한 저녁식사가 자금 확보를 위한 정석처럼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것은 참가자들이 고령자라는 이미지가 강해 젊은 세대들의 흡수가 큰 과제가 되었다.

영 라이언은 20대에서 30대의 사람들로 한정된 도서관지원을 위한 모임으로 연회비는 3백달러에서 2,500달러 이상까지 다양한데 회비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의 선물로 보낼 수 있다. 영 라이언의 회원이 되면 인문과학, 예술, 비즈니스, 법률, 정치학, 미디어 등을 테마로 하는 이벤트에 초대받게 된다. 앞으로 도서관을 선

도해 나갈 이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그들을 개척하여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출하고 이것을 기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영 라이언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자금모금을 위한 이벤트도 기획하는데, 그 중 하나로 아라비안나이트를 테마로 한 저녁 모임에서는 하룻밤에 10만 달러를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이벤트에 참석하는 젊은 작가나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사회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거리를 공유하는 동세대와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도서관을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2001년에 설치된 영 라이언 문학상은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상금은 만달러이지만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에 어필함으로써 젊은 작가가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유명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의뢰한다. 2001년 수상식에는 영 라이언의 공동평의회장을 맡고 있는 인기배우이자 작가인 이산 호크와 그의 아내 여배우 우마 서먼이 최종 작품의 일부를 낭독하였다.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콜슨 화이트 헤드는 수상인사로 집필에 있어서 도서관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토로하였다.

사업개발부는 운영기금 확보를 위해 타켓별로 일반시민, 독지가, 기업에 더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치가, 재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한다. 각각 가장 어필이 용이한 형태로 지원을 위한 기회나 기획을 행한다.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이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수집한다. 정부나 재단 등에 의한 보조금이나 연구비의 지원들에 대해서도 적당한 것들은 신청서를 보낸다. 재단에 직접 기부를 촉진하는 담당자도 있고, 도서관에 관심 있는 정치가를 찾아 도서관의 의의를 공손하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뉴욕공공도서관이라는 거대조직의 각 부분의 이해를 잘 조정

하는 능력은 물론,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한 것인가 등의 프로페셔널한 테크닉이 요구된다.

자금모금은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중노동이지만 담당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참신한 기획력은 대담한 발상을 가능하게 한다.

4. 결론 및 제언

뉴욕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활동들이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그간 일반인들의 뇌리에 그려져 있던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이 왜 중요하며 필요한가, 도서관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용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포함한 자치단체정책담당자들에게도 어필해야 한다. 특별히 인터넷시대를 맞은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정보거점으로 다른 어떤 공적시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면 가능한 일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전문 기관들은 특화된 충실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이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들과의 협력은 많은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역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공공도서관과는 전혀 별개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폭넓게 지역정보

화를 진행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를 비롯한 각종 NPO, 학교, 병원이나 의료기관, 예술단체 등 도서관이 다루는 테마에 따라 네트워크를 넓히고 그 속에서 협력관계를 위해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예산이나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불가결할 것이다.

셋째,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근래 공공도서관은 정보 네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전문인으로서의 사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직원들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들이 예산을 소요하지 않으면서도 큰 성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지역의 단체를 방문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무심코 찾아온 도서관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만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시민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보 가공능력이나 기획능력을 가진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각종 정보자원들을 구입하고 정리해 두고는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당연하지만 정보는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공공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연구센터이다. 무엇을 하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다양한 미디어로 망라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사서에 의한 정보네비게이터 기능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정보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수집하고, 정리하고, 검색하기 용이하게 편집하는 작업은 공공도서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도서관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별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단을 통해 정보를 재생산하는 정보의 발신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보의 발신자로 시민의 생활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존재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와 시민과의 관계를 재검검 함으로서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한 일들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경기타개, 교육문제, 의료개혁 등의 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도서관이 응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도서관만의 존재의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http://www.nypl.org>
- <http://www.plaza.across.or.jp/~shokotei/bunken.html>
- <http://catnyp.nypl.org/search/dnew+york+public+library/dnew+york+public+library/1,232,1056,B/frameset&FF=dnew+york+public+library&61,108>
- 윤희운. 도서관정책의 신조류와 시사점. 국회도서관보, 제34권, 제4호(2004, 1), pp. 24-26
- 總務省. 市區町村における事務の外部委託の實施狀況調査の結果. (2004, 3)
- <http://www.soumu.go.jp/s-news/2004/pdf/040325_4.pdf>
- ・豊田高廣. 地方分権と図書館經營: 基礎自治團體の視點から. 図書館評論, 제42호 (2001, 6)
- ・Harry Miller Lydenberg, History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stor, Lenox and Tilden Foundations, The New York Public Library, New York, 1923.

·Phyllis Dai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 history of its founding and early years, The Library, Astor, Lenox and Tilden Foundations, New York, 1972.

·Sam P. Williams, Guide to the research collections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merical Library Association, Chicago, 1975.

·Phyllis Dai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 universe of knowledge, New York Public Library in association with Scala Publishers, London, 2000.